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 | 7 | 제162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 매월 2째주 혹은 3째주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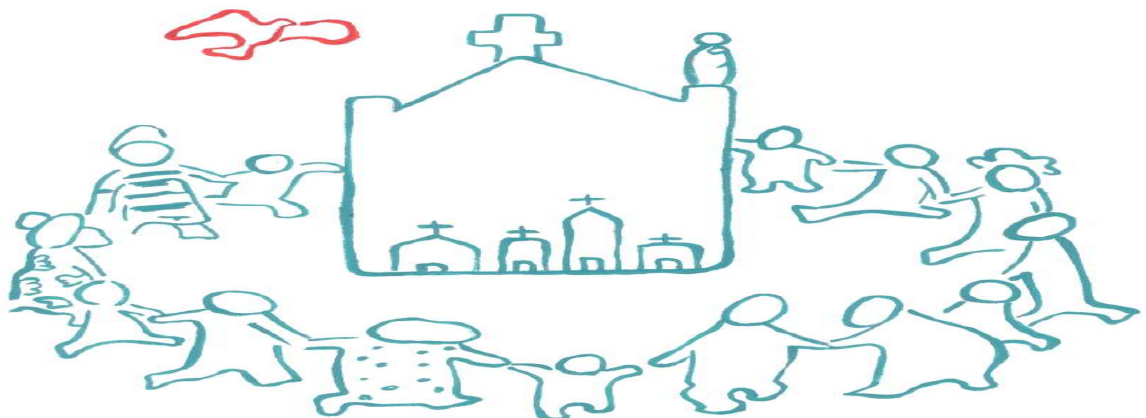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연중 제15주일 (7월 10일)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루카 10,25-37)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푸는 것"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5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2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27 그가 "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2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29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30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31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2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34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복음 나누기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루카 10,29)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나는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루카 10,27)

나는 복음 말씀처럼 하느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이웃이 되어 준 적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제와 레위인이 돕지 않은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돕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에게 가엾은 마음을 느낍니다. 어쩌면 자신도 이방인으로 취급 받으며 멸시를 받아왔기에, 쓰러져 있는 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다친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는 진정 자기 자신처럼, 다친 그 사람을 돌본 것입니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조건입니다.

'너 자신처럼'이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너로 철저하게 구분된 우리의 세상에서,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 그것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나누기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푸는 것"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복음 나누기

연중 제16주일(농민주일)(7월 17일)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루카 10,38-42)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01번 "주를 찬미하여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38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39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종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종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와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41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42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루카 10,38)

나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자리를 항상 마련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루카 10,42)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필요한 덕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이방인이며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신앙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마르타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 맛있게 대접하려고 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손님을 맞아들이고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세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손님의 뜻을 먼저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차리는 것은 대접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접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의 공간을 '조금'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분의 가치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고, 봉사해야 할 이들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01번 "주를 찬미하여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삼천포본당 6구역 "남양 2반"

삼천포본당은 1957년 설립하였고, 65년의 역사를 간직한 본당입니다. 소공동체는 7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본당신부님의 사목방침은 하루에 30분 이상 성경읽기 또는 쓰기, 소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기, 매일 사회적 약자와 버림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모든 신자가 신심단체 활동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동안 중단된 소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역별 미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성당 잔디마당에서 구역별로 주일미사 후 음료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형제자매님의 안부를 주고 받는 대화 속에서 다시금 서서히 일상이 회복되어감을 느끼며,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느님께 찬미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는 매달 둘째주 월요일에 많게는 16명, 적게는 8명이 참여하여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반원들의 모임이 활성화 되어 복음나누기도 하고 성지순례도 가며 남양 2반 소공동체 밴드도 만들어 활동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풍요로움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소공동체는 그동안 눈 인사만으로 지낸 2년의 세월을 넘어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던 생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자주 만남도 가지고 예전보다 더 활발해지는 소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느님의 은총을 청해봅니다.

친교의 주님, 주님 안에서 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소서. 아멘.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

1. 소공동체 안에서 선교계획

1) 선교계획수립

소공동체에서 가장 시급한 선교문제를 논의한 후 분야별(모임의 불참자, 냉담자, 입교 대상자 등)로 목표를 선정합니다. 본당 선교분과의 연간 계획을 참조하여 이에 상응하는 소공동체 선교활동 시기를 결정하여 소공동체의 환경에 맞는 선교방법을 선택합니다.

2) 선교 대상자 선정

선교 대상자는 교적과 예비신자 대장을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냉담신자는 냉담기간 및 세례기간, 가족 구성원의 신자 수 등 대상 가정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과 활동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신자 탈락자는 명단을 받아 탈락 시기와 탈락 원인, 연령 및 여건을 파악하여 활동방법과 활동자를 선정합니다.(서신 발송, 1차 방문, 2차 방문)

3) 선교 대상자의 분류 및 명단 작성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 선정합니다.

-냉담신자 : 세례 받은 본당과 연도 및 마지막 판공성사 연도

-예비신자 : 개인 신상에 관한 것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특이 사항 등을 작성한 후 소공동체 봉사자 및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나누어 주되 사생활에 대한 문제는 비밀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4)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바치는 공동기도(화살기도, 매일 묵주기도 몇 단 이상)와 개인적으로 바치는 기도(방문이나 직접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도활동을 하게 할 수 있음)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